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연중내내 기획전시…개인미술관으론 세계 최다 관람객

암스테르담=정상필 EU특파원

1973년 개관 99년 전시동 증축
고흐 회화·데생·편지 등 소장
관람객 절반 30세 이하 젊은층

네덜란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관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따로 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반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이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매년 100만명 미만의 관람객이 찾는 반면, 반 고흐 미술관에는 15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간다. 지난해 147만명이 찾았고, 1973년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은 2006년에는 연간 관람객 수가 160만명을 넘었다.

네덜란드 역사박물관 역할을 하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보다 많은 관람객을 모으는 반 고흐 미술관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단일 화가의 미술관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20세기 미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피카소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파리 피카소 미술관이 개관 첫 해인 1986년 85만명의 관람객을 받은 이후 현재 관람객은 매년 50만명 정도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반 고흐 미술관의 연간 150만명은 놀라운 일이다.

1973년 개관한 반 고흐 미술관의 메인 빌딩은 네덜란드 건축가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에 의해 설계됐다. 1999년 특별전시동이 들어선 뒤로 메인 빌딩에서는 상설전시만 열리고 있다. 특별전시동은 일본 기업 야스다 보험의 협찬으로 일본인 건축가 기쇼 구로가와(Kisho Kurokawa)가 설계했다. 야스다 보험은 반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해바라기'(1888)를 198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2억4천만 프랑(당시 환율기준 약 480억원)에 사들인 곳으로 유명하다. 특별전시동이 건설되던 시기에 메인 빌딩도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은 반 고흐의 회화 200여점, 데생 500여점, 편지 700여점 등이다. 반 고흐의 동생 테오(Theo van Gogh·1857~1891)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은 테오의 사망 이후 부인 요한나(Johanna van Gogh-Bonger·1862~1925)를 거쳐 아들 빈센트(Vincent Willem van Gogh·1890~1978)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반 고흐에게는 조카가 되는 빈센트는 '빈센트 반 고흐 재단'을 설립한 뒤 1962년 정부와 협의 끝에 1천500만 굴덴(네덜란드 옛 화폐 단위)에 모든 작품을 국가에 넘겼다. 네덜란드 정부가 미술관 연간 예산(2007년 2천900만 유로(약 514억원))의 2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소장품 중에는 반 고흐의 작품 외에도 반 고흐 형제가 소장하고 있던 고갱(Paul Gauguin)이나 뚤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등의 작품, 일본 회화 등이 포함된다. 미술관 측은 반 고흐와 동시대를 살았던 화가들의 작품을 사들여 소장품 규모를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대표적 포비즘 화가인 모리스 드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1876~1958)의 대표작 '낭떼르의 센 강'을 소장품 목록에 올렸다.

반 고흐 미술관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꾸준히 끌고 있는 이유가 소장품 때문만은 아니다. 굵직한 기획전시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개관 이래 최대 관객이 몰렸던 2006년에는 전반기 4개월 동안 진행된 특별전 '렘브란트와 카라바조'에만 40만명이 넘게 몰렸다. 지난 6월에 막을 내린 특별전 '반 고흐와 밤의 색깔'에는 53만명이 다녀가 미술관 측은 올해 2006년의 최대 관람객 기록을 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해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느냐의 관건은 훌륭한 기획의 특별전을 몇 개나 했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

반 고흐 미술관이 자랑하는 것 중 하나는 젊은 관람객이 많다는 점이다. 전체 관람객의 절반이 30세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4년부터 콘서트 등을 곁들여 진행하고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의 금요일 밤' 행사에는 20~35세 젊은이들이 매번 1천명 가량 다녀간다. 이 밖에 다른 미술관과 연계 행사인 '미술관의 밤', 초등학생들을 위한 '반 고흐 미술관 버스', 예술사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 아카데미'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젊은 관람객들을 사로잡는다.

/camus@kwangju.co.kr

매년 150만명 안팎이 방문하는 반 고흐 미술관은 네덜란드 최대 미술관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곳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반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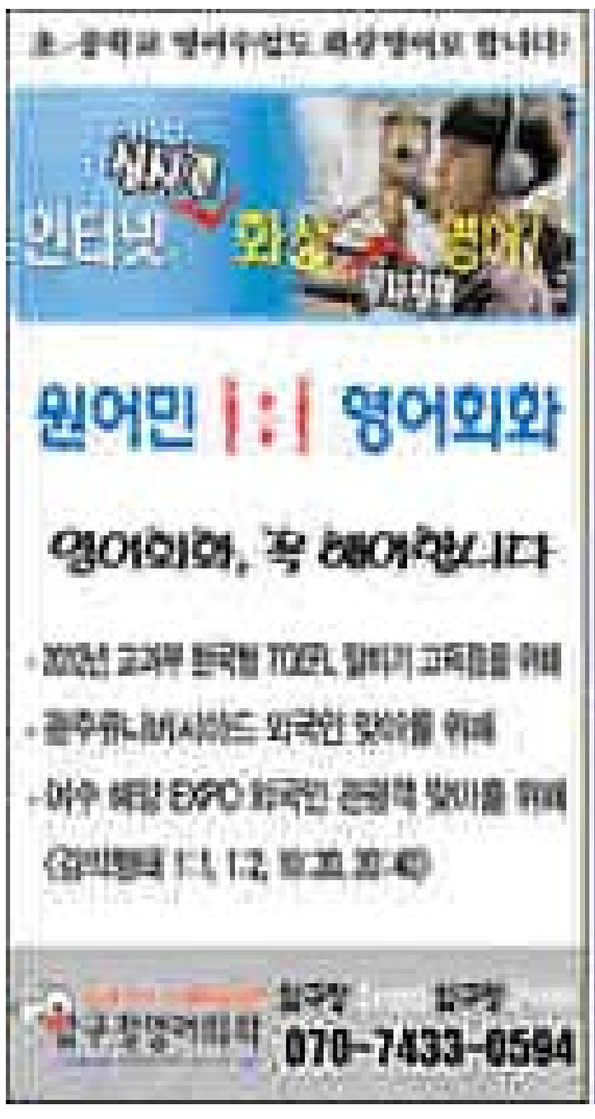
작품 활동 기간 10년 불과…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점

■ 짧고 강렬했던 고흐의 삶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강렬한 색채와 파격적 붓놀림으로 일관했던 그의 작품처럼, 짧지만 인상적인 삶을 살았다. 반 고흐가 화가로서 작품활동을 했던 것은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 10년 동안에 불과하다. 그는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1880년부터 수채화와 석판화를 포함한 840여점의 회화와 1천여점의 데생을 남겼다.

또 그가 파리에서 그림 수집상 일을 하던 동생 테오에게 보낸 상당한 양의 편지가 남아 있다. 후세에 남겨진 그의 생각 등이 담긴 모든 기록은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대부분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왔다. 사랑에 실패하고, 화가로 인정받지 못한 데다, 정신병 증세를 앓은 끝에 자살로 마감한 그의 불행한 삶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그가 생전에 팔린 그림이 단 한 점('붉은 포도밭'(1888))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지낸 1880~1885년, 그의 롤 모델이었던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를 따라 주로 시골 풍경과 하층민들의 삶을 그리는데 집중했다. 밀레의 그림을 베끼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감자 먹는 사람들'(1885) 등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1886년 동생이 살던 파리로 옮겨 예술가들의 동네인 몽마르트 인근에서 작품활동을 지속한다.

파리에서 2년 동안 그는 27점의 자화상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주로 어두운 색을 사용했던 그의 작품이 인상파와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아 밝은 빛을 띠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대도시 생활에 실증을 느낀 그는 1888년 프랑스 남부 아를로 이주해 2년여 동안 남불의 햇살을 만끽하며 수많은 작품을 그리지만, 1889년 발작 증세가 심화돼 스스로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정신병 증세가 계속되던 시기에도 발작이 멈출 때면 미친 듯 그림을 그렸다. 그는 퇴원 후 1890년 파리 북쪽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 정착했다가 세 달을 채우지 못하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반 고흐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공동묘지에 그를 따라 6개월 후 세상을 뜬 평생의 후원자 동생 테오와 나란히 묻혀 있다.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전시된 '펠트모자를 쓴 자화상'(1887).